

# 文化社會에서 어린이讀書와 어린이圖書館

Yu Prosalkova著

金孝貞譯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글은 57차 모스크바 IFLA총회(1991. 8. 18~24)의 어린이 도서관부 주제발표 논문(Session 104. 8. 20. 12:00~14:20)으로 USSR, Lenin 국가도서관의 Dept. of Theory and Methodological work with Readers and Book Promotion, Yu. Prosalkova부장의 Children's Reading, the Children's Library in the Culture of Society를 번역한 것임.

러시아의 유명한 산문작가 M.Prishvin은 “모든 일은 항상 이 세상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발견되기 전(前)에 미국은 화약이 유황형태로, 초석과 석탄이 덩어리로, 땅위에 있었고 원자는 행성과같이 회전한다. 세계에서 선례없이, 나는 오직 과거로 이동하는 불멸의 순간에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불멸의 순간으로, 선례없는 이 “나”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린이는 미래일 뿐아니라 현재의 실체로 존재한다.

새로운 세대는 그 세상에서 오고 그 세상을 발달시키고 직접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통하여 사회적, 지적, 정신적 지식을 저장하고 확보한다. 많은 다른 정보매체의 출현에도 관계없이 독서는 쉽게 그리고 즐겁게 숙달될 수 있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로 남는다.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중 책에 대한 요구의 80%는 다른 어린이와 가정도서관 등을 통하여 가까운 환경에서 만족한다는 일반적 의견이 있다. 우리는 이 수치가 조금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L.Gudkov의 글 “책 성수기의 종말(Literary Gazette, No.1, 1991. pp9-10)”에 인용된 데이터에 의하면 소련에서 가정도서관은 140억~145억의 책을 갖고 있다. 그렇

지만 그의 분석에서 가족의 1/3은 90% 책을 갖고 있고 2/3는 보통 선택한 소규모의 책을 소유하고 가족의 32~33%는 전혀 집안에 책을 보관하지 않는다. 5인-가족이 50권이 못되는 어린이책을 갖고 있다. 러시아(내생각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역시)의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 대부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어린 독자들 생각에 항상 원하는 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때로 사람들은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은 맨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사실상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 사이에서 매력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접근성(민주주의)은 사회적 지위, 편안함등에 관계없이 과거와 현재의 맥락에서 책과 독서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 어린이를 보내는 사회를 용납하고 어린이가 조직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공공도서관은 학교에서 지시하는 것과 비교하여, 특히 독서에서, 새로운 세대와의 관계 형성에 역시 민주적이다. 이것은 심리적 교육적 차이를 인정하고 창조적 매개자인 도서관인은 독서와 문학세계에서 어린이의 친숙한 동반자이다.

이상적으로 도서관인은 어린이—독자를 직접적인 사회화의 주체로 보지 않아야하고 어린이에게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자율적, 사회—문화적 실체, 원초적 준문화(I. Kon)로 어린이를 보고, 책의 실체속에서 자신의 행동모형을 따르게 해야한다. 도서관인의 교육적 방법은 주로 정서적 노력, 즉 독자의 인성에 도덕적 측정 형태, 예를들어 가치세계와 지적 요구의 내적 자극을 일어나게 하는, 정서적 노력에 의지한다. 공공어린이도서관의 전체 조직은 어린이에게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게하고, 책장을 넘기면서, 독서하여 지식을 넓히게 하는 욕망을 일깨우려는데 목적이 있다.

어린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세대의 사회화기관이고, 과거와 현재 책 문화의 여백 사용을 가장 충분하게 하며, 모두의 첫 시작인 어린이시절과 청소년기를 위한 한 사회를 구성한다. 도서관은 책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정신적 세계로 독자들을 이끌어 간다. 어린이생활에서 어린이도서관의 현재 범주를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환경에 따라 이 책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어린이의 독서내용과 구조에 연관된다. 즐거움을 위한 독서; 확실한 목적없는 독서; 직접적 실제목적 없이 흥미 있고 유용한 책을 즐기나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독서; 국가 계획이나 일반적 교육인 수업체계에 연결되어 동기를 부여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독서가 있다.

어린이도서관활동은 사회의 가치방향과 상호관계를 자연스럽게 맺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문화의 전이(傳移)와 어린이에게 다가오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구조속에서 진행된다. 공공도서관은 사람의 규범위에, 사람이 살아있는 미래 활동위에, 새로운 세대의 관념속에 창조적 제도에 한 단위로 다시 나타난다. 도서관은 독자의 문화의식을 채우고 있는 전통을 측정하고 있고 이 방법으로 각 나라, 사회, 그리고 일반 인간의 미래 문화에 대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문학과 책 문화여백을 통하여, 어린이독서활동을 조직하고 자극하는데 도서관은 사회가 개인의 생활을 지각하게하고 해설하게

하며 규정지어 신성하게하므로써 어린이가 상상과 이념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돕는다.

어린이도서관은 거의 언급되지않은 사회의 중요한 문화윤리적 측면을 갖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시절과 청소년기의 책 문화를 집대성하여 측정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시간과 공간속에서 상상을 보존하고 이 상상들은 독특한 풍요를 이루는 기회를 현 세대에게 주는, 전 세대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왔고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는 일반생활속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나라와 사회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범주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문학, 어린이독서 그리고 어린이 책, 문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면서 계몽하는 계몽자의 원초적, 실제적,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이 어린 독자를 위한 활동을 지향하는 공공도서관과 어린이 가족, 부모(가정의 도서수집가, 가정교육과 어린이교육의 이상가) 사이에 있는 상호관계의 실체는 중요한 것이라는 이유이다. 공공 어린이도서관은 결코 다른 사회—문화적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시절, 어린이의 사회적 심리적 가치, 성격특성과 내적 세계, 어린이의 외적 행동의 역동력, 어른 세계의 어린이 지각을 깨닫게 도울 수 있고 어린이문학에 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 창조성이 소설 비소설, 민담등에 영향을 미치게 도울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하는 경향이고 전 세대의 즐거움을 일으켰고 그 즐거움을 실현하였고 도서관인은 USSR을 포함하여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앞에서 언급한 역할의 내용을 보존하는 기능의 도서관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른 조건을 주었을 때 만 고상한 사명을 진행한다.

이리하여 공공어린이도서관은 이 장서를 통하여 다리(교량)가 될 수 있다. 이는 어린이 욕망과 욕구에, 가장 좋은 문학, 예를들면 어린이접근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큰 도시뿐 아니라 작은 위성도시까지 전 세대의 문화와 새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그렇지만 나는 가깝게 접근한 지역에서, 이 최선의 시대와 먼 상황에 있는 현대 공공어린이도서관이 당면

한 안과밖의 어린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많은 지역연구와 조사 그리고 몇개의 연방연구과제가 진행되었다.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비소설에 대한 혁명전 어린이 독서에 관한 연구, 몰다비아에서 혁명전 어린이 독서, 러시아에서 독서 조직에 부모와 어린이 도서관의 상호관계, 에스토니아에서 국가적 책과 어린이 독자 준비와 출판에 관한 연구, 라트비아에 교육적 어린이 책의 수서 상황 등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전 연방과학조사의 첫 단계는 Lenin 국가도서관의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 현황과 경향”을 지시하여 완성하였고, 공공어린이도서관 이용자의 국내외 고전어린이문학과 어린이독서에 관한 유효성을 전 연방이 조사하여 결론을 내렸다. 이런 연구의 자료들은 연구조사자들이 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기 이전에—현대 어린이도서관, 특히 지방에서 양적, 질적 자료가 그 문화유리적 사명을 이행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새 세대가 미래를 보는 눈으로 과거와 현재 문화를 연결하는 단위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러시아에서 방대한 영토에 살고있는 인구의 언어로 쓰여진 어린이와 청소년 책 450책이 전국 600만 책과 같이 해마다 출판되고 있다. 각 지방국에는 특수화된 출판사, 많은 국가출판사와 협력하는 단체들이 어린이 책을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 어린이문학, 어린이도서관의 일반공공장서에 의한 어린이독서, 심지어 국가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언어조차, 사실적 유효성은 최선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이에게 봉사하는 다른 도서관에서, 예를들어 마을도서관과 성인용 공공도서관에서 러시아어로 된 문학은 많았고 다른 언어로 된 문학은 적었다. J. 베르스의 “선장 그랜트의 어린이”를 읽을 가능성은 마을도서관의 유아독자 19/100뿐이다. 다른 언어는 더 적었다.

책에 관계하는 기관에 의한 각 책의 유효성은 실제로 지방에 따라 다르다. 가장 많은 책 수는 에스토니아와 몰다비아에서 발견된다. RSFSR에서 어린이책의 유효성은 바이로시아와 비교하여 7배였고 리트아니아와는 10배, 에스토니아와는 20배였다.

이 기관의 결론에 의하면 어린이 문학출판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항은 에스토니아, 몰다비아, 리트아니아에 있다.

공공어린이도서관의 다언어 장서구성 문제, 자신의 문화를 흡수하고, 같은 시간에 다른 문화에 접근하는 기회를 어린독자에게 주는 장서의 문제는 다국가, 다언어 인구를 가진 많은 나라 전문가들이 당면하는 것이다. 책에 대한 비현실적인 어린이 요구는 공공도서관에 관계하여 읽지않는 사항의 한 정보출처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책 문화에 대한 다음 차이를 믿게할 수 있다. 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은 단지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 문화로, 가까운 그리고 거리있는 이웃 문화로 우리 독자를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의견에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에 관한 문제는 다른 이유중에서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질서인 사회학자와 예지로, 공공도서관, 특히 도시문화와는 소외된 소규모 도서관의 준비없는 것과 연계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대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기대의 어긋남은 사회에서 지원하는, 바람직한 책을 얻는 확실한 정보출처로서 어린이들의 도서관관념을 파괴시킬 수 있다.

많은 나라의 사회학자들은 어린시절과 청소년기의 환경을 주창한다. TV, 비디오 현대음악, 스포츠등은 강하게 책을 압박하고 현대 젊은이는 오락 독서로 보내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른 사회학적 수치가 인용되었다. 도서관의 이 “수요”에 연계하여 장서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린 독자가 어린이 생애에서 가능한 일찍 책과 관계하고 이 환경에서 행하는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하는 것은 이 방법으로 인류문화의 영원한 가치를 감상하게 배우는 독서를 자주하고 조직하려는 노력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비디오문화권(더 시각적 지각)에서 말로 나타난 상상을 포함하여 세상과 실체에 대한 어린이지각의 특성이 변한다해도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조적 의식에서 풍요한 상상은 문학과 연결되어있고 어린이가 책에서 전통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있고 만일 공공어린이

이도서관이 사회화와 문화현상의 기관이 될 것으로 계속 맞춘다면 이 활동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사회, 사람들이 관찰하는 진보적인 경향의 맥락속에 항상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도서관의 활동은 역동적이고 그 업무에서 도서관은 진실한 가치를 향하여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가능한 한 멀리, 옳지않은 임시 변통의 경향, 고정관념, 계획,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려는 목적을 설정해야한다.

어린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습적 개요를 잃고 있다. 현대, 우리는 어린이의 내적 생애와 우리 생애가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 차원을 꿋고 있으므로 어린이들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고있다는 것은 단지 피상적인 것이다. 어린이와 우리 사이의 “분기점”이 시대적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인 것이다. 현대 젊은 세대간의 시간과 공간 간격은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식적이거나 비의식적이거나 당대 어린시절에 의해 흡수된 정보의 연속, 대량 문화의 마취성, 정서의 매력, 그리고 비디오 문화는 어린이 실체를 양분하고 이 의견차이는 어린이 의식의 일부가 되고 있다.

우리는 말하는 낱말, 인쇄된 책과 대량매체의 기호를 통하여, 문화를 함축하면서 생애를 시작하는 한 세대를 취급하고 있다. 비디오 상상, 세상의 많은 나라 당대 어린이가 첫 몇년동안 살아가는 함께하는 “기호들”은 어린이의 처음 지각과 상상의 세계, 공상, 그리고 통합을 고쳐간다. 이것들은 어린이에게 시적각 언어, 표현방법의 계획을 가르치고, 이것이 손짓 몸짓으로 신호하는 부호가 된다. “비디오-문학”은 어린이도서관 장서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지각은 비디오 상상의 영향에서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하고 “TV사고” “소설의 TV감각”같은 개념은 열람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

어린이독서와 어린이기술적 게임을 나란히 놓는 것은 별 의미없고 고지식한 것이 될 것이다. 잘 알려진 체코의 작가는 “시에 대한 사랑은 컴퓨터 언어의 어린이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생애가 시를 익혀져 알기를 요구한다. 컴퓨터 언어의 지식은 문학에 대한 사랑으로 어린이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역시 그의 생애에서 필요로 할 것이다”고 말하는 때 그렇지만 어린이 세계에서 두 현상은 공존한다.

어린시절은 아마도 개인이 그의 내적 세계에 처음부터 묶여있고 문학이 매개없이 독자와 저자의 친밀한 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읽기를 계속한다. 문학작품의 예술적 상상은 독자의 정서적이고 감각적 세계와 접촉하는 데서 심미적인 것을 얻게한다. 책의 저자와 독자는 그들의 노예로 “커뮤니케이션의 신호하는 질적 체계”를 설정하고 이 체계는 하나의 같은-작품을 해석하는 이중성을 가져온다.

책과 독서는 마음에서 항상 사람이 지시에 저항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 비디오는 항상 촉매이거나 비촉매이거나 쇼스(Source)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상적 사고의 통일을 잃어낸다.

어린이도서관은 책과 독서를 위하여, 점잖게 깨어 있어야하고 어린이의 생생적(genetic)인 매력을 보존하고 개발하여야 한다.